



월간규문 7월호

Hot Issue

동사서독 상반기 에세이 풍경

공부한다면 이들처럼

김윤식 교수가 읽고 쓰는 법

소설 읽는 수경

한강, 『소년이 온다』

태람이의 파종

소로우

元一의 “樂樂”

브라이언 이노 Brian Eno,
Thursday Afternoon(1985)

이 사람을 보라

주공 ▶

이달의 선물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동사서독 에세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설 시대부터 진나라 통일 전까지를 탐사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5개월. 이번 학기는 유독 파란만장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 그 생존자 10명의 에세이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전 9시 30분.

폭풍우 치는 밤을 지나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비를 헤치며 규문에 도착했는데, 태옥쌤은 이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한쪽에 이번 학기 책을 쌓아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시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쌤, 혹시 밤새셨어요?” “아니, 두 시쯤 집에 갔어...”) 시간이 지나면서 간식과 에세이를 지참한 선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테이블은 어느새 풍성해졌는데, 에세이도 이 간식만큼 풍성할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30분.

첫 발표는 은남쌤과 율희언니! 두 사람은 첫 에세이에도 8장을 꽉꽉 채워오는 기염을 토하며, 기존 멤버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은남쌤은 <사기열전에 나타난 인간의 욕망과 관계 기술>라는 제목으로 [열전]에 나타난 인간관계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는 좋았으나, 인물들은 설명 없이 나열되어 있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한 것 같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율희 언니는 <불운을 바라보는 관점 속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사기]의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운’이라는 개념을 재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가진 불운의 전제를 깰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결론을 통해 자신의 전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 같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오후 1시.

선양禪讓 콤비(!), 완수쌤과 영수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완수쌤의 <선양과 세습>은 [서경]과 [사기]에 나타난 선양 문제를 정리하고, 그것을 세습과 비교하여 유교의 정치적 욕망을 해석하는 에세이였습니다. 영수쌤의 <요순시대, 다스림의 근본을 보여주다>라는 에세이 역시 선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서론에서 주제가 부각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글이 정리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양을 습관적으로 세습과 대립시키는데, 사실 호칭은 사후적이고, 권력 승계의 측면에서 보면 둘은 별반 다르지 않은 개념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순시대나 선양 문제는 인류학적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번에 제사! 태옥쌤과 혜경쌤의 에세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옥쌤의 에세이 <연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인들의 제사>는 고대인의 연속성에 대한 사유와 제사를 지내는 것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글이었습니다. 서론에서 ‘일단 출발!’ 안 하셔서 별금 적립해 주신 태옥쌤. 이번 에세이로 ‘연속성 전문가’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 혜경쌤의 <제사, 신성하고 조화로운 삶의 기예>는 제사가 고대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글로, 한편의 문화사적 에세이 같았습니다. ‘와글와글’을 쓰신 후 문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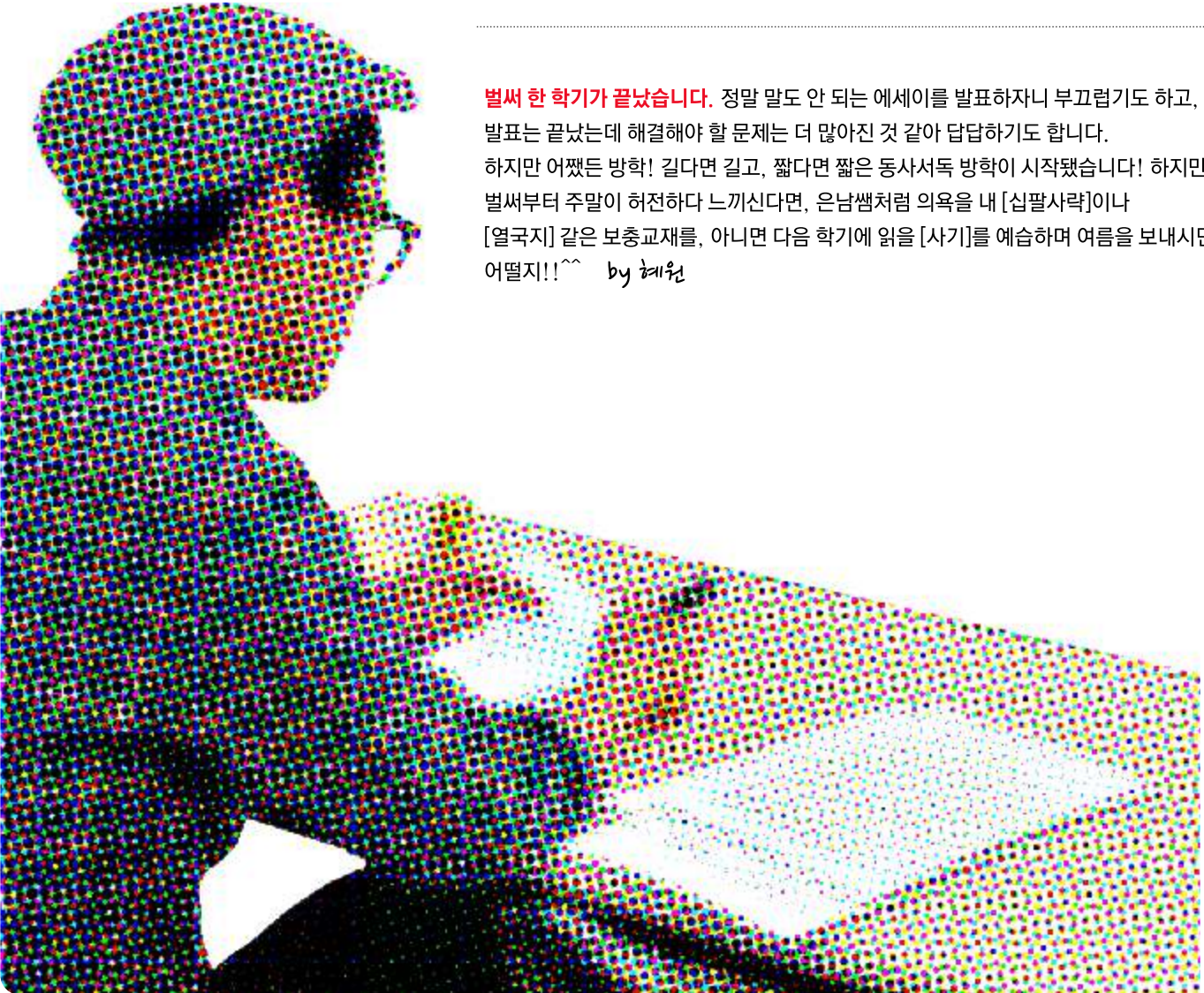
문제적 에세이, 저와 윤정언니. 먼저 제가(혜원) <중국 사유에서 천명의 위상>을 발표했는데... 개념을 정리하고, '천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왜 이 개념을 보려고 하는가' 등의 기초공사를 확실히 한 다음 글을 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용이 없는 글이 나왔습니다. ^^ 윤정언니는 <중국은 어떻게 천하가 되었는가-국가의 형성과 중화주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중화주의의 탄생을 국가가 형성되는 지점부터 찾고자 시도했습니다. 윤정언니 글은 원문, 인명 등을 꼼꼼히 다룬다는 장점과, 질문은 많은데, 깊게 파고들어 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후 7시.

9시에 끝낸다는 약속과 함께 시작한 마지막 발표. <서경을 통해 본 삼대의 군신관계>를 쓴 옥상언니와, <서경과 국어의 역사인식>을 쓴 제리언니! 옥상언니는 유일하게 10장을 다 채워 온 능력자! 하지만 군신관계라고는 해도 특정 키워드가 없어 논점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리언니의 글에서는 '시간관'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을 사마천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간과 시간이 결합된 '시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서양은 공간과 시간이 분리되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시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시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에세이 발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에세이 발표 전, 채운쌤이 '두 명 이상 분량을 못 채울 시 방학은 없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결과를 보니 분량을 못 채운 사람이 셋이나...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안 됩니까?“)라고 하신 공가쌤^^ 결국 서로의 오타와 비문을 고쳐서 월요일까지 올릴시 방학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동사서독 숙제방을 보시라:D



벌써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에세이를 발표하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발표는 끝났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아진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방학!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동사서독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주말이 허전하다 느끼신다면, 은남쌤처럼 의욕을 내 [십팔사략]이나 [열국지] 같은 보충교재를, 아니면 다음 학기에 읽을 [사기]를 예습하며 여름을 보내시면 어떨지!!^^ by 혜원

소설 읽는 수경

소년이 살았던 삶, 살 수도 있었을 삶- 한강, 『소년이 온다』

광주 이야기가 또 다시 소설로 나왔다.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그것이다. 신간 출간 소식에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작가에게도 광주 이야기에든 큰 흥미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쩌다보니 책을 구입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 그 책을 펼쳤다가 아주 혼이 났다. 자꾸 눈물이 났기 때문이다.

작품 제목이 암시하듯,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저어기 80년 광주에서 살던 소년이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서서히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된다. 계엄령 당시 거리에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정신없이 도망쳐야 했던 소년, 그 후 도청의 다른 시민군 사이에서 지내기 시작한 소년, 그리고 잔혹했던 마지막 밤에 죽은 그 소년. 작가는 광주의 소년들이 살았던 짧은 삶을 조용한 어조로 들려주고, 또 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꿈꾼 미래 -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광주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았을 삶을 그려 보인다. 그 삶은 지극히 평범하다. 평범해서 마음이 아리다.

교련복 칼라 속으로 들어온 선득한 빗물이 러닝셔츠를 적시고 허리까지 흘러내린다. 혼의 눈물은 차갑구나. 팔뚝에, 등에 소름이 돋는다. 비가 안 들이치는 출입문 앞 처마로 너는 뛰어 돌아온다. 도청 앞 나무들이 힘차게 빗발을 튕겨내고 있다. 계단 안쪽 끝에 쪼그려 앉아 너는 얼마 전 생물 시간을 생각한다. 별이 나르하던 5교시에 식물의 호흡에 대해 배웠던 게 다른 세상의 일 같다. 나무들은 하루에 딱 한차례 숨 쉰다고 했다. 해가 뜨면 길게 길게 햇빛을 들이마셨다가, 해가 지면 길게 길게 이산화탄소를 내뿜다고 했다. 그토록 참을성 있게 긴 숨을 들이쉬는 나무들의 입과 코로, 저렇게 세찬 비가 퍼붓고 있다.

그 다른 세상이 계속됐다면 지난주에 너는 중간고사를 봤을 거다. 시험 끝의 일요일이니 오늘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마당에서 정대와 배드민턴을 쳤을 거다. 지난 일주일일 실감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 다른 세상의 시간이 더 이상 실감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고 있는 중이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 접속해 뉴스를 보기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 나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권력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300명의 목숨보다 중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봐버려 할 말을 잃고 만 것이다. 그리고 있는 동안 제일 많이 떠오른 건 그때 배 안에 있었던 소년소녀들. 마지막까지 조바심 속에서 기다리고 궁금해 했을,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고독했을 그 아이들 말이다. 그들이 살았던 삶, 때로는 신났고 때로는 지긋지긋했을 그 일상을, 그리고 일말의 의혹도 없이 그들이 그려보았을 앞날을 그들 대신 이제 내가 그려보곤 한다. 그러던 중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했고, 그 순간 나는 휘청거렸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초기 몇 시간을 허비해버린 것도 모자라 민간잠수부들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기 싫어 눈앞에서 배를 침몰시킨 군경이 아니라 청해진 해운이 이 모든 참극의 원흉으로 지목됐고, 대통령은 눈물 한 번 흘렸으니 제 할 일 다 했다 여기는지 해외로 다니기 바쁘고, 월드컵 시즌이 되자 사람들은 붉은 옷을 챙겨 입고서 노래 부르고 박수를 쳤으며, 발견되지 않은 열 구의 시신은 아직도 물 속 어딘가를 떠돈다. 그래서 나는 임형주가 고운 목소리로 부른 노래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혐오한다. 나는 자유롭게 날고 있으니 이제 울지 말아라... 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람이 되었다... 그 위안과 따뜻함이 내게는 아주 나쁘게 여겨진다. 쓰디쓴 애도의 시간을 서둘러 건너뛰고 참사를 전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이벤트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식의 수사는 그야말로 정치인들이나 반길 법한 싸구려 중의 싸구려다!
이것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유다. 이 작품을 통해 나는 80년 광주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깨닫는다. 아울러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그런 유의 사건들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망각에 대한 저항이요 요약에 대한 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남은 자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며, 그래서 묻고 또 물어야만 한다. 그 같은 생각이 작가로 하여금 '저기 소년이 온다'라고 쓰게 했을 것이다. 군인의 총에 맞아 순식간에 제 육신에서 빠져나온 소년의 혼이,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안간힘 쓰며, 쫓불처럼 파닥거리며, 지금 온다, 라고.

더 많은 기억이 필요했어.

더 빨리, 끊어지지 않게 기억을 이어가야 했어.

여름밤 마당에서 등목을 했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보물 같은, 펴프로 막 길어올린 차가운 물을, 네가 양동이째 내 끈끈한 등에 끼얹었지. 으흐흐, 몸서리치는 나를 보고 너는 웃었지.

천변길을 따라 자전거를 탔지. 몽클몽클한 맞바람의 중심을 가르며 달렸지. 내 하얀 하복 셔츠가 날개같이 퍼덕었지. 뒤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았지. 네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더 신이 나서 페달을 밟았지.

초파일이 마침 일요일이었을 때였지. 엄마를 모신 절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누나와 함께 강진에 내려갔지. 시외버스 창밖으로 봄날의 논배미들이 보였지. 누나, 온 세상이 어항이야. 모를 내기 직전의 맑은 눈물에 하늘이 끝없이 비쳐 있었지. 아카시아 냄새가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나도 모르게 코가 벌름거려졌지.

누나가 햇감자를 찌렀지, 허를 데어가며 그걸 후후 불어 먹었지.

설탕 같이 부스러지는 수박을 먹었지, 새까만 보석 같은 씨앗들까지 꼭꼭 씹어 먹었지.

국화빵 봉지를 스웨터 속 왼쪽 가슴에 품고 누나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렸지, 두 발은 얼어서 아무 감각이 없었지, 심장만 활활 타는 것 같았지.

키가 자라고 싶었지.

팔굽혀펴기를 마흔 번 연달아 하고 싶었지.

언젠가 여자를 안아보고 싶었지. 나에게 처음으로 허락될 여자, 얼굴을 모르는 그 여자의 심장 언저리에 떨리는 손을 얹고 싶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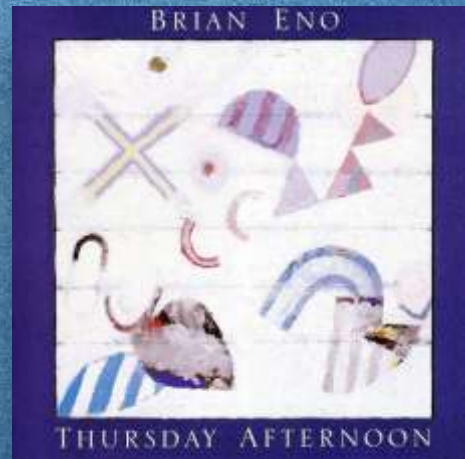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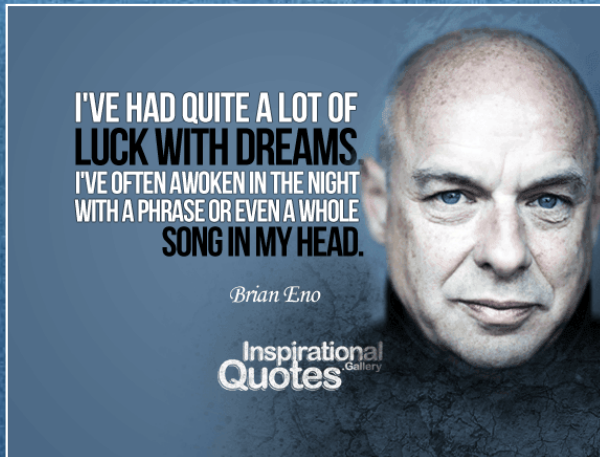


元一의 樂樂

樂樂은 음악을 즐기다(락악), 즐거움을 음악하다(악락), 즐겁고 즐겁다(락락), 음악을 흔들어라(Rock樂)
모두를 의미하는, 원일샘의 음반소개코너입니다~

대화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공기 중에 둥둥 떠 다니는 음악.
정신집중과 신경안정에 도움을 주며 평온한 마음 상태로 이끄는 음악.
그런 음악을 일컫는 앰비언트 뮤직 Ambient Music 의 선구자가 바로 브라이언 이노(Brian Eno)다.
마치 배경이나 공기처럼 부유하는 이러한 음악은 정신과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듣는 이를 이끈다.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나 공부하다가 지친 분들께 강추! 책이 잘 안 읽힌다면 심지어 독서의 집중력을
강화시켜줄지도 모른다. 일렉트로닉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과 예술과 철학의 경계를 사유하는 브라이언 이노는
현재 나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이름만으로도 후덜덜한 David Bowie, U2, Talking Heads, Underworld, Cold Play 같은
즐비한 명반들의 프로듀서이며, 현재에도 수많은 아티스트와의 공동 작업을 즐기는 협업자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95년 Windows 시작화면 사운드를 Mac만을 사용해 만들었던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30여 장이 넘는 그의 다양한 음반들 중 하나만을 고르기는 쉽지 않지만, 더운 여름 휴식과 정신에 도움을 줄 앨범이라
생각하여 고심 끝에 하나를 골라 소개한다.

브라이언 이노 Brian Eno



Thursday Afternoon(1985)

다층적 톤을 지닌 공기 속을 떠다니는 피아노 소리로 이루어진 단 한 곡이 한 장의 음반 전체에 담겨 있으며,
길이는 61분.(85년 아티스트 크리스틴 알치아노 (Christine Allciano)의 비디오 페인팅 VHS를 위한 사운드트랙이다)

37분 이후에 나오는 긴 지속음들에 이르면 모든 게 정지한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음반은 구하기 쉽지 않으나 유튜브를 통해 접하기는 쉬움.)

공부한다면 이들처럼

“나는 두더지” - 김윤식 교수가 읽고 쓰는 법

‘한국근대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따위 던지지 않아도 밥 먹고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평범한 독자들도 이따금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소설만이 지닌 고유함은 무엇인가? 혹은, 일본소설이나 영미소설과 한국소설의 차이는 무엇인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한국적 특성이라는 걸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 이런 걸 묻고 따지기 시작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김윤식 선생과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알기로 그는 처음으로 문학 연구 속에서 한국의 근대를 질문한 학자이고, 그럼으로써 한국 문학사의 토양을 더없이 풍요롭고 넓게 일군 학자이기 때문이다. 문학 연구에 매진하기로 결심은 했으나 도무지 ‘한국’도 ‘문학’도 선형적 범주 그 이상이 아닌데다가 무엇보다도 그 한가운데 위치한 ‘근대’가 아직 정체불명이었던 6, 70년대, 아직 젊은 이 학자에게 그것은 정면 돌파해 싸워야 할 거대한 적수였다. 그 결과물을 우리는 이미 잘 안다. 『한국문학사』, 『이광수와 그의 시대』, 『염상섭 연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백발이 성성한 이 노학자는 꼬박꼬박 월평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마치 가수 윤종신이 매달 한 곡씩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듯 말이다. 그러니까 매달 온갖 지면에 발표된 온갖 작가들 - 신춘문예 당선자, 신진작가, 인정받는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그 달에 읽고 그 달에 비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달에 나온 작품을 바로 그 달에 읽는 것. 왜냐하면 작품과 같은 시공간 속에서 그것을 읽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현장비평! 지난 세기에 김윤식 교수가 매진한 문학사 연구와 현재의 월평 사이에는 기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현재 발표되는 작품들이란 결국 한국 문학사 안에 새로 기입해야 할 변화 그 자체인바, 그로부터 새로운 한국 문학 및 한국 사회의 징후를 포착하기, 바로 이것이 김윤식 교수가 목표로 하는 바이다. 하여 한국의 근대를 알기 위해 제국의 유학생 이광수를 뒤쫓아 온갖 자료실을 헤집던 집념의 학자는 이제 매달 수많은 소설을 읽어치운다.

이를 위한 그만의 방식이랄까 신념은 이렇다. 우선 한 작품을 적어도 세 번은 읽는다는 것. 일단 발표 지면에서 읽고, 월평을 쓰면서 다시 읽고, 월평을 다시 점검하면서 또 읽기. 읽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 쓰기 위해서는 그보다 배로 읽어야 한다고 그는 습관처럼 말한다. 김윤식 교수가 자신을 ‘두더지’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터. 들입다 자료를 뒤지는 것, 쓰기 위해 그 열 배의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것, 그는 그것을 자신의 특징기로 여긴다. 이렇게 읽으면서 김윤식 교수는 말 그대로 매일 쓴다.

매일 원고지 20매 분량의 글을 쓰는 것이 자신의 몸에 가장 적합하더라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성실함이 없었다면 교수 은퇴 후에 무려 40여권의 책을 출간하는 일은 불가능했으리라.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내가 읽고 만난 일본』에서 발견했다. 일본의 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와의 가상(?) 대화에서 고바야시로 분한 김윤식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 실천적 경험을 구체적 사례로 든다면 이렇지요. 비평문으로서 잘 씌어진 것은 모두 타인에의 찬사라는 것. 타인에 대한 나쁜 말을 글로 쓴 것으로는 잘된 비평문이 없다는 것.” 뒤따라 이런 문장도 보인다. “비평이란 사람을 칭찬하는 특수한 기술이다!” 자기 앞에 도착한 한 작품에 대해 김윤식 교수가 갖는 이 같은 태도는 말을 잃게 한다. 실상 특정한 시공간이 빚어낸 모든 작품은 누군가가 발견해주길 기다리는 한 통의 미스터리한 편지와도 같다. 그것을 읽는다는 것, 앞서 읽은 누군가의 귀뜸 한 자락 없이 그것을 읽고 심지어 아직 그것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그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월평이란 그 정도로 무모하고 무서운 일일 수 있다. 과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정과 존경 없이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게다.

화상 입은 제 손이 여기 있습니다. 소경이 된 제 눈이 여기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제 귀가 여기 있습니다. 귀먹고 눈멀고 화상 입은 손발로 쓴 글이 제 현장비평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글이지만 나름대로의 빛이나 온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심봉사 모양 개천에 자주 빠지긴 했어도 그는 딸 청이의 아버지였던 것. 그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않았을까. 목소리만 남은 심봉사의 글이지만 누가 화상이라도 입는다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에서 고안해낸 방식이 이 책의 구성인 셈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설가들』 서문에서)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해내는 김윤식 교수가 존경스럽다. 매달, 아니 매일 꼬박꼬박 무언가를 읽고 쓰는, 수도승의 그것을 방불케 하는 삶에 대한 찬탄과 더불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존경과 겸허함을 잃지 않고 제 할 바를 수행하는 한 문학자의 생 전반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묘한 감동이 여기 있다. 그는 자신을 두고 ‘글쓰기에 생을 탕진한 인간’이라 부르는데, 그런 식의 탕진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존재를 걸고 시도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김윤식 교수도 일본의 전설적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내 삶에 후회란 없다!” 아, 자기 글을 읽어줄 사람 중에 이런 비평가가 있다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들은 그 얼마나 행복할 텐가! by 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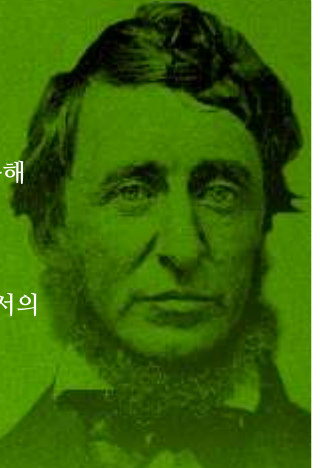




태람이의 파종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노예제도 폐지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몸으로나 재산으로만 매사추세츠 주 정부를 지원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정의가 자신들을 통해 승리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만약 그들이 하느님을 자기편으로 두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욱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자기 이웃들보다 더 의롭다면 그는 이미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중에서)



1846년, 월든 숲에 들어간 지 1년 째 되던 해, 소로우는 체포됐다. 몇 년째 인두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충분히 각오한 일이다. 노예를 사는데 쓰이는지 총을 사는데 쓰이는지 모를 일에 자신의 돈이 쓰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더 명예롭고, 스스로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소로우는 분개한다. 자유의 피난처임을 자임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6분의 1이 노예이고, 의사당 문 앞에서는 인간을 사고팔며, 타민족을 침입해 그들의 땅을 짓밟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페일리 같은 사람은 사회의 이해관계가 요구하는 일이라면, 또 일반 국민들이 혁명을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없는 한, 기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로우는 페일리처럼 적당히 타협할 수 없었다. 살아가는 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행동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기만적 국가가 강요하는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먼저다.

소로우는 확신한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임을. 법에 대한 근거 없는 존경심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을 보라. 그들은 “인간성의 그림자이며 추억에 지나지 않으며, 산 채로 염을 해서 세워놓은 인간 또는 이미 장송곡과 함께 무기 밑에 묻혀 버린 인간” 기계들이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국가는 무슨 권위로 “하느님뿐만 아니라 악마도 함께 섬기는 이”가 되라고 명령하는가? 악마적 행위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수치감이나 양심을 망각한 채 탐욕의 행렬에 스스로를 물들이지 않는 것이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한 의무다. 소로우가 보여준 종교성은 모든 행위의 근거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았다는 데 있다. 타락을 거부하기. 이것이 종교적 인간 소로우가 보여준 혁명성이다.

문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사람들은 노예제나 멕시코 전쟁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그와 관련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소로우가 볼 때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일은 우리의 의사를 가볍게 표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온 몸으로 투쟁하라는 소로우의 당부. 시절 좋게 자연을 예찬하고 있는 것 같은 글에서도 우리는 “단지 한 조각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전부” 던졌던 한 사람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너무 소소해 보인다고? 한 사람의 행동이 뭘 바꿀 수 있겠느냐고? 소로우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허황된 것은 없다.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다. 체제 비판은 쉽다. 모든 잘못을 사회 구조, 정치인들, 자본가들에게 돌리면 그만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바뀌길 기다리면 그만이니까. 소로우의 행위는 이런 관념의 찌꺼기가 아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로 행했다. 그러나 이는 그에겐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었을 뿐이다. 소로우는 가장 단순한 행위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어려운 행위임을 가르쳐준다.

소로우는 “나무마저도 죽을 때는 신을 소리를 낸다”고 했다. 이 근래에 읽었던 문장 중 이처럼 강렬한 문장은 없었다.

공부가, 언어가 저항일 수 있다면,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이겠구나 생각했다. 200년 동안 지구 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무가 어떻게 학살되고 있는지, 소로우는 시의 언어로 고발한다. 그리고 사라질 것들, 무용한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한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어떻게 생각하고 행위 하는가가 나란 인간의 전부인 것 같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인가? 소로우가 온 몸으로 던져서 했던 이 고민은 이제 나의 몫이다.



이 사람을 보라

마차의 주인이 되기보다 마부가 되려 했던 사람, 주공(周公)

공자는 자신이 노쇠했음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한다. **“오랫동안 내가 꿈에서 주공을 다시 뵈지 못했도다!”** 아마도 공자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주공(周公)일 것이다. 공자는 찬란한 주나라의 문화를 숭상했으며 사람됨을 평가할 때도 **“주공같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볼 게 없다.”**라고도 했다. 공자는 주공처럼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군주를 보좌하고, 그 나라를 세련된 문화를 가진 문명국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다. 주공이 대체 누구길래 공자의 롤 모델이 된 것일까? 사마천은 <주본기(周本記)>에서 **“성왕의 나이가 어리고 주(周)가 막 천하를 평정하였으므로 주공은 제후들이 주를 배반할까 두려워 마침내 섭정하여 국사를 주관했다.”**라고 말한다. 왕 대신 국사를 처리한다는

‘섭정(攝政)’이라는 위험한 권력은 역사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그 결말은 대개 비극적이다. 그러나 군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섭정’의 지위를 지키다 그 권력을 왕에게 되돌려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섭정’ 모티브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주공이었다. 후대의 야심가들은 모두 주공을 떠올렸으나, 주공처럼 하지는 못했다.

주공은 주나라의 개국공신이자 주무왕(武王)의 동생이며 주문왕(文王)의 둘째 아들이다. 때는 은나라 말기, 주지육림(酒池肉林)하며 즐거운(?) 생활을 하던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紂)는 몹시 교만했다고 한다. 『서경』에 따르면 그는 **“충신과 어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아이를 뺨 부인의 배를 가르고 살을 베어 죽였다.”**고 한다. 이에 하늘이 진노하여 문왕에게 천벌을 내리라고 한 것이 은나라를 정벌한 주나라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오래된 은나라의 전통이 쉽게 무너질 리가 없다. 문왕이 세상의 인심과 제후들의 지지를 얻고 나서도, 그의 아들 무왕 대에 가서야 방자하고 포악한 주(紂)를 정벌 수 있었다. 무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태공망을 사(師)로 삼고 동생인 주공을 보(輔)로 임명하여 목야에서 전투를 벌여 승리한 후 주나라를 건국한다.

그러나 무왕은 걱정이었다. 우리가 세운 이 왕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내가 세운 주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후손 중에 주(紂)같은 아이가 나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무왕은 덜컥 병에 걸리고 만다. 사람들의 눈은 당연히 주공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이때 주공은 자기에게 그런 야망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 ‘형님을 낫게 해주시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라며, 형님이 아픈 건 자기에게 기회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엔 아직 주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정벌전쟁의 묘안을 짜낸 작전 참모 태공망은 특히 두려운 존재였고, 주공의 다른 동생들도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다. 집권세력이 분열하면 오히려 다른 집단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었다. 주공에게 처음부터 군주가 되겠다는 야망이 없었는지 아니면 나라의 정세가 그런 꿈을 접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주공은 **“장차 어린 왕에게 불리한 짓을 할 것이다.”**라는 음해도 받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음을 수차례 밝힌다. **“군이여! 내가 따르지 아니하고 이처럼 많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다만 하늘과 백성을 근심할 뿐이오.”** 이렇게 하여 주공은 어린 나이에 즉위한 성왕 대신 7년 동안 섭정하며, 동생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주나라의 행정과 법률, 조세 등의 제도를 확립한 후 신하의 자리로 돌아간다.

군주의 능력이 있었으나 차마 하지 않은 사람, 주공. 그는 자기의 능력이 어디에 쓰면 가장 빛을 발할지 알고 있었다. 마차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마차를 움직일 마부가 되고자 했던 사람. 그는 주나라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공자는 주공을 통해 마부의 역할을 하는 신하를 생각했을 것이다. 변변찮은 사람이 군주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주공 같은 신하가 있기 때문이다. 군주의 아들이 아닌 상태로, 자신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건 주공처럼 할 때이다. 그러나 마차의 주인은 마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고, 마부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마차를 넘본다.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주공, 그는 늘 넘치거나 모자라는 인간 숲에서 가장 먼저 ‘중용의 미학’을 보여준 사람이다. by jerry



이달의 선물

1. 덕순이의 미생전집

규문 1주년을 축하한다며 선물한 미생전집!
덕순아~ 잘 읽을게^^

2. 은남쌤의 옥수수, 수박, 나물, 매실, 오미자 액기스

이번 달에도 규문의 열혈 학인 은남쌤 덕택에 입이 호강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쌤^^

3. 인문서당 강원의 정미정쌤의 감자, 옥수수, 양파

팍신한 감자, 쫄깃한 옥수수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꾸벅~~

4. 인문서당 강원의 미선의 오이장아찌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선물을^^
감사합니다. ㅎㅎ

5. 쿤우쌤의 제주도 감귤

규문의 섬남(섬세한 남자)^^ 쿤우쌤의 휴가 선물!
제주도를 느끼며~ 아껴먹고 있어요.^^

6. 강한민쌤의 꽃다발

미술 강의 첫 시간에 선물에 주신 꽃다발!
쌤 덕분에 눈이 간만에 호강했습니다.^^

7. 태욱쌤의 고급과자

호텔스쿨에서 제작된 고급진 과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월간규문은 매달 말일 혹은 다음 달 초에 스페셜하게 발간됩니다.
발행인 채은 / 편집 윤차장